

46과 변화된 바울 - 황용선 목사

다같이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6절부터 9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은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됐습니다.

오늘은 변화 된 사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가지 말씀을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회심사건이 사도 바울의 회심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

회심이가지고 사도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권, 성경 지식이 풍부했고 로마식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된 교회를 이뤄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 사도바울이 했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구원을 받아서 변화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뭐죠?

성경을 남겨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즉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 사도바울이 사도다라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사도권으로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특권을 가지고 더 힘있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4가지를 살펴 볼 건데 하나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

는 겁니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아는 거다 이것을 배울 거고

두 번째는 사도바울이 실제로 삶 가운데 그의 삶에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만남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친밀함 만남을 갖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때가 바로 신앙의 첫걸음이다

그래서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자 나는 그 분의 종이다 그것을 생각해 볼거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계획했던 것 바로 교회잖습니까?

그리고 서신서를 남겨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계획과 섭리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잠깐 보면 예수를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입니다.

1번에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내 열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지혜다

사도바울은 그가 자기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는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는 자라

갈라디아서 1장 14절 밑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

사도바울은 회심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생애 기적뿐만 아니라 그 분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았잖아요.

그 밑에 줄에 세 번째 줄 화살표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는 그 이전에 스테반이 죽을 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으며
처음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은 스테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고 또 가가호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수색해서 남녀를 끌어내어 감옥에 보내면서 교회를 파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외국인 다메섹으로까지 교회를 형제 자매를 잔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떠나는 중이었고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증오와 편견으로 즉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사도행전 26장 9절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6장 9절입니다

9장 22장 26장에 나옵니다.

2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잔멸시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던거죠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정말 교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보다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행여 그런 입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 보시면 잠언 19장 2절에 같이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하나님의 일군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나서 뭘니까?

후반부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열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고 그 뜻을 좇아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회심 이전에 사도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여기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2번 그 인생의 전환점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도바울의 삶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역할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사귀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화살표를 보면 여기 그의 일생에 있어 전적으로 변하는 만남이 있었다.

바로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 이전에 만난 많은 사람이 이토록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아니 없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 만남 중에는 의미 있는 만남도 있었을 것이고, 별 의미 없는 만남도 있었을 것이다.

당대에 학자였던 만큼 그는 많은 학자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 만남은 그에게 지식을 더해주었을 것이다.

아마 가말리엘을 만난 것은 그에게 큰 의미를 준 만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한 만남에 대해서 한 번도 자세히 언급 된 적이 없잖아요?

그의 등장은 그가 스데반을 만나고 부터이다.

진실한 예수의 증인 스데반과의 만남은 그의 일생의 변화의 시작이고 그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고 스데반의 순교를 직접 눈앞에 지켜보았다.

그의 설교와 그의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용기 있었던 모습, 도무지 저항하지 않고, 자기를 치는 자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기를 원

하는 말이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인다는 말을 직접 들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다메섹에 나타난 그리스도로 인하여 절정에 이른 것이다.

그럼 순서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스데반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발갈이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한 인생이 딱 변화되고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 그리고 일곱 귀신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부자였지만 마음이 공허했던 키 작은 삭개오도, 소경거지 바디매오도,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 되었잖아요

제가 3일전에 제가 저기 인천대공원 가로수 되게 멋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단풍이 엄청 멋있게 들었더라고요?

이야~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삶의 여유가 없이 그냥 살았구나

그런데 그 모습을 딱 보고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가을이 되니까 이 아름다운 나무가 단풍이 아름답게 지었던 것처럼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딱 생각해 보니깐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생명이 있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 있잖아요.

그걸 참 깊이 있게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어떻게요?

어떻게 입니까?

그 방법이 1장 9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변화 되었던 변화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의 만남을 통해서 일생의 전환점이 있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
기 위해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 지는 비결이 있잖아요.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 힘이 됩니까?

예수님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 주인으로 인정할 때가 바로 신앙의 첫걸음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평생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자

여기 사도행전을 찾아보겠습니다.

22장

찾아보겠습니다.

22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무슨 얘기죠?

어떤 명령이든지 내리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잖아요

왜요?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됐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딱 받으면 예수님이 내 삶에 구원자 구세주로 인정이 될 뿐만 아니
라 주, 주인이구나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라

반복되죠?

사도행전 10장 36절에도

만유의 주 되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만유의 주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항상 주와 그리스도가 떼려야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분이 내 삶에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분이 주가 실제로 되었고 그 분이 내 삶에 정말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
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4장 5절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은 전파 했습니다.

무엇을 전파했냐면 오직 오직이죠?

이 말씀만 증거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면서 주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되신 것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종이 됐잖아요.

항상 섬겼잖아요?

그런 삶의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항상 형제 자매들의 중, 섬기는
자로 내가 존재한다

우리 학생들을 섬기는 자로 나는 우리 학생들의 종이다라는 어떤 태도와 마
음가짐을 갖는 게 필요하겠더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거기 나와 있죠?

유인물을 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됐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뭔 줄 알죠? 뭐죠?

거룩입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면 어떤 이 담대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거룩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렇죠.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서.

그런 마음을 꼭 갖자라는 겁니다.

4번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만들어 가는거고 뿐만 아니라 서신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남겨 놔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사도 바울의 생애를 따라가자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은 고난의 길이지 않습니까?

희생입니다

여기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장 22장 15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 여기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마르투스입니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교하는 정신이 필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도바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장 16절부터 17절까지 입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거룩해 된 우리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구원을 받았던 회심했던 궁극적인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뭐냐?

교회를 이루는 거죠.

사도바울이 구원 받은 것은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오묘한 섭리가운데 우리가 사도바울이 구원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바울이 우연히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유인물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 빨간줄로 된 가운데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었다.

그의 삶은 영광에서 고난으로 바뀌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

욥기 2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시편 138편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되신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The LORD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

나를 향한 그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드렸잖아요?

그럼 과연 나는? 나는?

지금 예화로 밑에 보면 어떤 성도가 기도를 할 때 이랬다고 하잖아요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의 손으로 저를 저희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훗날 그 주님의 손이 누구라고요? 자기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친숙에게 고하라
하신대

네 친속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창세기 19장 12절에도

롯에게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수아 2장 18절에도 라합한테 한 말이죠?

네 형제와 아비와 네 가족을 다 네 집에 “뭐라고요?” 모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알겠지만 항상 먼저 구원받고 가족들, 지인들이지 않습니다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4가지를 살펴봤는데

다시 한 번 열정보다 열심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 되었던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귀를 교제를 만남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여기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그 계획과 뜻이

내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도바울의 생의 그 고난의 길을 닦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교사가 된 것도 우연은? 우연은? 아니다 저절로가 아니다 이걸 쫓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늘 친밀한 사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혜가운데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결코 사람의 삶을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아이들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남아 있는 모든 교제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